

##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 내외 주최 국민만찬 답사

존경하는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 각하 내외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귀빈 여러분,

나와 우리 일행을 이처럼 따뜻하게 맞아 주신 데 대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인도네시아를 다시 찾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우리 국민이 보내는 우정의 인사를 전합니다.

각하께서는 헌정사상 최초로 민주적인 직접선거에 의해 대통령에 취임하신 후 재난극복과 부패척결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이끌고 계십니다. 특히 지난해 각하께서 직접 서명하신 '헬싱키평화협정'은 아체 지역 분쟁해결에 소중한 돌파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ASEAN의 중심국가로서 역내 평화와 안정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다자간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인도네시아가 차기 UN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된 것도 각하의 지도력이 일궈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각하와 국민의 저력으로 인도네시아가 더욱 평화롭고 번영된 나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대통령 각하,

인도네시아는 ASEAN 국가 가운데 우리의 첫 번째 교역상대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천연가스의 4분의 1을 공급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28만 명이 넘는 양국 국민이 왕래할 정도로 인적교류도 활발합니다.

앞으로의 협력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IT와 에너지·자원, 산림, 개발협력 등 여러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각하와의 회담은 대단히 유익했습니다. 무엇보다 양국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기로 한 것은 의미가 큼니다. 이번에 체결한 원자력과 관광 분야 협력협정은 두 나라 관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양국은 UN 등 국제무대에서도 그동안 든든한 친구가 되어 왔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적극 성원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평화와 번영의 동반자로서 힘을 함께 모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3만여 우리 교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귀빈 여러분,

내년에 서울에서 각하를 다시 뵙기를 기대하며, 각하 내외분의 건강과 인도네시아의 번영, 그리고 우리 두 나라의 영원한 우정을 위해 축배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